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hursday 13 May 2010 (afternoon)

Jeudi 13 mai 2010 (après-midi)

Jueves 13 de mayo de 2010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제일과 제일장

사실 이번 길은 수택의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그것이 희망의 재출발이 될지, 패배가 될지는 그는 타고난 운명(?)에 맡기려니와 현재 그의 가슴에 채워진 감회도 이 둘 중 어느 것인지 그 자신 모르고 있는 터다. 그가 농촌생활을 꿈꾸고 이른 봄 서지¹ 안을 두둑하게 넣은 춘추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사직원이 이중봉투를 석 장이나 갈가리 피우고 여름을 났을 때는 그래도 ‘패배자’란
5 감정이 없을 때였다. 일급 팔십 원의 샐러리라면 그리 적은 봉급도 아니었다. 회사 총무부 주임 말마따나 이런 자리를 노리는 대학 출신의 이력서가 기백장 서랍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터다. 사변으로 해서 갑자기 물가가 고동²해진 터라. 이 정도의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도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는 하나 그렇다고 전혀 수입이 없는 것보다 낫 것은 주먹구구까지도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그의 계획을 듣고 친구의 대부분이--아니 거의 전부가 반대를 한 것도 이 단순한
10 타산에서였다. 너 굴러든 복바가지를 차버리고 어쩔 테냐는 듯싶은 총무부주임의 눈치나, 철없이 날뛰다고 가련해 하는 눈으로 보는 동료들의 말투가 그의 결심이 되레 기름을 쳐준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수택의 계획은 그네들이 보듯이 그렇게 근거가 적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계획의 무모함을 충고하는 친구와 동료들의 거의 전부가 생활난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수택만큼 생활고를 겪어 온 사람도 그만한 나췌³로는 드물 것이었다. 열두 살에 고향을 떠나서 중학교를 고학으로 마쳤고,
15 열일곱에 동경으로 가서 C 대학 전문부를 마치는 동안도 식당에서 벗겨 내버린 식빵 껍질과 먹고 남아 버리는 밥덩이를 사다 먹고 살아온 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오륙 년 동안, 동경서 구르는 동안에도 공중식당일망정 버젓하니 밥 한 끼 사먹어 보지 못한 채 삼십 줄에 접어든 그였다. 조선에 나와서도 지금의 신문사 사회부 기자라는 직업을 얻기까지의 삼 년간은 십 전짜리 상밥으로 연명해 온 그였고, 직업이라고 얻어서 결혼을 한 후도 고기 한칼 떼땀이 사먹어 보지 못한 그였다. 더욱이 십 개월이란 긴
20 동안 신문이 정간을 당하고 푼전의 수업이 없었을 때도 세 끼나 밥을 못 끓이고 인왕산 중허리 같은 배를 끌어안고 숨까지 가빠하는 아내와 만 하루를 얼굴만 쳐다보고 시간을 보낸 쓰라린 경험도 갖고 있는 그였다.

이십 개월 동안에 그는 평상시 오고 가던 친구들도 수입이 끊어지는 날로 거래가 끊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쌀말이나 설렁탕 한 그릇도 월급봉투가 없이는 대주지 않는 것도 잘 안 터였다.

25 “인제 널 것도 없지?”

하고 물을 때,

“입은 것밖에---.”

하고 대답하던 아내의 우울한 음성도 아직 귀에 새로웠고, 십여 장이나 되는 전당표를 삼 개년

계획으로 찾아내던 쓰라린 경험도 아직 기억에 새로운 터였다. 바로 신문이 해간되던 바로 그
30 전달이었지만 막역지간⁴이라고 사양해 온 M이라는 친구한테 마침 그날이 월급일이라서, 아니 월급날을
일부러 택한 것이었지만 삼 원 돈을 취대⁵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코 분김에 욕을 하고 돌아온 사실을
기록해 둔 일기가 아직도 그의 책상 어느 구석에 끼워져 있을 것이었다.

이 수택이가 선선히 사직원을 내놓고 나선 것이니 놀랄 만한 사실임에 틀림은 없었다.

“그래 갑자기 회살 그만두면?”

35 마지막으로 사직원을 접수한 R 씨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금후의 생활설계를 설명하는 데 조금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무영<인문평론(人文評論)>(1939)

¹ 서지: 옷감 이름

² 고등: 물가가 크게 오름

³ 나썰: 어느 정도로 먹은 나이

⁴ 막역지간: 벗으로서 아주 허물 없는 사이

⁵ 취대: 돈을 꾸어 쓰기도 하고 꾸어 주기도 함

2.

봄 비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줄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한 없이 게으르게
5 푸른 하늘 우를거린다.
아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어렴풋이 나는 지난날의 회상(回想)같이
10 달리는, 뵈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안에 자지러지누나!
아 찢림 없이 아픈 나의 가슴!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15 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 없고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
소리도 없이 근심같이 내리는구나!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

변영로 <신생활 2호> (1922)